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스위스 FHNW 교환학생 후기>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이원진

1. 지원동기

저는 이제껏 외국에 많이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지만 가끔은 저의 생각이 정체되어있지 않은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저의 시야를 넓혀주기에 교환학생은 최고의 프로그램이라 생각되어 지원하였습니다.

2. 교환학생 지원

교환학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내성과 어학성적이 필요합니다. 교내성적은 학내에서 선발되기 위함이고 어학성적은 파견학교에 합격하기 위함인 듯합니다. 저는 성적이 좋지 못하여 지원 가능한 학교의 폭이 지극히 좁았습니다. 그중 스위스는 제 어학성적으로 넣을 수 있는 대학이 있는 유일한 유럽 나라였습니다. 저는 ETH, FHNW에 지원하여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FHNW에 파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FHNW에서는 추가적인 온라인 영어 평가와 영어인터뷰를 요구하였습니다. 영어평가는 쉬웠으나 인터뷰는 다소 까다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PEP 프로젝트 수업을 제외한 교양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3. 교환학생 출국 전 준비사항 (VISA 등)

스위스에 교환학생을 위한 비자 발급 등은 꽤 복잡하기에 신경 써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3-1) 스위스 비자

스위스에서 9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위스 입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주한스위스대사관 사이트에서 찾거나 블로그 등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 중 CV나 Letter of motivation 등은 적당히 1장 내로 적으면 충분하고 나머지 서류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Payment confirmation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넣어놓아야 하는데 교환 동안 사용할 양의 금액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3-2) 해외결제카드

신한은행의 글로벌멀티카드나 하나은행 비바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스위스 현지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면 또 다른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한글로벌멀티카드와 하나비바카드는 각기 다른 장점이 있는데 둘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3-3) 보험 가입(국내 유학생보험 이용 시)

스위스에서 거주등록을 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합니다. 국내 유학생보험이 스위스보다 저렴하

여 이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서명이 있는 서류가 있으면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스위스에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 3-4) 유심

스위스 생활 동안 해외유심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서 유럽 유심을 사 오는 것입니다. 보통 EE와 three 유심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통화가 되지 않는 데이터 유심 5GB(90일) 2개를 구입했고 추가로 8GB(60일) 유심을 구매했는데 WiFi가 설치된 곳이 많아 여행이 아니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WiFi를 쓰기 위해 SMS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통화가 가능한 유심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에서도 유심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별로 요금을 내는데 다소 비쌉니다. 아마 월 29CHF를 내면 스위스 내에서 월 10GB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외에서 데이터를 쓰기 위해 추가로 돈을 내야 하여 불편합니다.

### 3-5) 장학금

교환학생 생활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만약 다른 외부 장학금을 받기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등 몇몇 장학금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재단 장학금은 수령 후 교환교에서의 최소 과목 수, 최소 평점 등을 요구받기 때문에 심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4. 스위스 입국 후 해야하는 일(거주 등록 등)

스위스에 입국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될 것들이 있습니다.

### 4-1) 교통권 구입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정기 교통권을 구입하여 교통편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정기 교통권은 3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GA PASS/Halbtax&Gleis7

-GA PASS: 245프랑, 스위스 내 기차, 버스, 상당수의 페리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여러 산악 열차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 이상 사용 시 구매 가능합니다.

-Halbtax: 100프랑, 교통권을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Gleis 7: 만 25세 이하의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티켓으로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선배들과 비슷하게 GA PASS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교통편 이용을 아주 손쉽고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대 교환학생의 경우 Brugg캠퍼스에서 공부하는데 많은 경우가 그로부터 30분 가량 떨어진 Olten이라는 도시에 삽니다. 그래서 교통 지원금으로 187프랑이 매달 나옵니다(5개월 간, 현금으로). GA PASS는 245프랑이라 그 차액만 내면 됩니다. 스위스 내에서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고 기차를 탈 때마다 교통권을 살 필요도 없으며 여러 혜택도 받을 수 있는 GA PASS는 교환학생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GA패스는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 기간동안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잘 이용하면 교통비를 추가로 아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수증에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하여 교통비를 지불하고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스위스 도착 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4-2) 거주등록

Olten staff house에 거주한다면 총 두 군데에 들려야 합니다.

먼저 Trinbach에 위치한 Gemeindehaus(주민센터)에 갑니다. 지참해야 될 서류들과 20CHF을 챙겨 버스 5분타면 갈 수 있습니다. 서류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으나 보험서류와 여권, Rental agreement, Letter of Confirmation 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의 과정을 하면 2주 정도 후(개인 간 편차 심함) 거주 등록 확인증을 우편으로 받습니다. 이를 들고 Solothurn에 있는 Ausweiszentrum Kanton Solothurn(거주등록센터)에 갑니다. 여기서는 137CHF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232CHF을 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등록 당시 저는 만 18세여서 적게냈지않나 추측하고 있고 보통 232CHF를 냅니다. 이곳에서의 과정을 끝나면 거주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습니다.

#### 4-3) 보험

스위스에서는 의무적인 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달라 개인이 더 찾아봐야 할 경우는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학교 측에서 권장한 대로 SWISSCARE에 가입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5달 반 동안 있게 되어 6달 치 요금인 396프랑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유학생보험 등을 들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람에게 따라서는 보장금액 등을 이유로 당국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한국 보험을 들었고 보험 설계사의 싸인이 포함된 서류(type A: 스위스대사관에서 찾을 수 있음)를 제출하여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SWISSCARE는 스위스에 도착한 후 가입하였으며 가입 후 요금청구서가 우편으로 배송되면 그것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비용 지불은 여러 방법이 있으나 저의 경우는 우체국에 청구서와 그 비용을 주고 해결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후 한참 있다가 100프랑이 추가로 청구되는데 이것은 이유는 모르지만 내야됩니다. 제 주변 사람 모두 결국은 지불했습니다.

#### 4-4) 그 외

스위스 은행(UBS)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주 등록을 끝낸 이후 가능한데 이 계좌를 통해 스위스 내 계좌 이체를 이용한 공과금 납부 혹은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소한 쿠폰 등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수적이지는 않기에 스위스에서 시간이 남으신다면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기숙사 보증금은 150CHF인데 현금으로 학교에 지불하고 체크아웃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체크아웃을 한 후 한국에 곧장 가므로 이 금액은 공항 외에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 5. 스위스 거주 생활

#### 5-1) 음식

스위스는 물가가 매우 비싸기로 소문난 나라입니다. 외식 시 20CHF 이상은 기본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식료품 가게에서 음식을 사서 요리를 해야합니다. 스위스에는 COOP, MIGROS, DENNER의 마트가 있는데 보통 DENNER가 가장 저렴합니다. 가끔가다 보이는 LIDL, ALDI라는 마트도 있는데 ALDI의 식료품 가격이 위의 마트 중 가장 저렴합니다. 데너 기준으로 한국과 비슷한 쌀은 2kg에 2CHF, 돼지고기 500g에 5.9CHF, 굴 2kg에 3CHF, 맥

주 한 캔에 0.65~3CHF 정도 합니다. 한국음식은 취리히에 있는 '유미하나'라는 한인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다소 비싸게 한식 재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김치 1kg에 7.5CHF로 기억합니다. 한국에서 음식을 택배로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으나 주변 한국인들은 가족에게 필요한 것과 음식(김치, 김, 건조국 등)을 받았습니다.

#### 5-2) 기숙사

Olten 기차역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Kantonsspital Olten의 staff house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14층 건물 중 5개 층이 교환학생에게 배정된 듯합니다. 한 층에 1인 1실로 14개의 방이 있고 공동주방과 화장실이 층마다 있습니다.

주방에는 대부분의 조리기구가 있습니다. 한국인 중 한 분이 개인 밥솥을 준비해오셨는데 이 기숙사 내에 층마다 밥솥이 있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필요에 따라 IKEA 등지에서 추가로 개인 주방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지하에 세탁실이 있는데 15분에 0.4CHF 소요되며 동전만 사용 가능하여 동전이 필요합니다. (동전교환기 X) 건조는 옆에 마련된 건조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층별로 칸이 나뉘어 있습니다.

staff house에는 발코니가 있는 방과 없는 방이 있는데 신청 시 발코니가 있는 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6. FHNW 수업 후기

FHNW에서는 총 17ECTS를 이수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기숙사비를 지원해주는데 이를 위해서는 15ECTS 이상을 이수해야하고 이를 고려하여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FHNW 공과대학에는 저의 전공인 건설환경공학에 관련된 수업이 열리지 않아 컴퓨터공학과 수업과 기초교양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기가 다소 긴데 9월 3주차에 시작된 일정이 2월 2주차까지 진행되어 여행계획도 이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일정 중간중간에 방학과 project week 등이 끼여 긴 휴가를 즐길 수 있었으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곳의 수업은 특정 프로젝트 수업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영어수업만 들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수업에서 영어를 잘 구사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모르는 저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몇몇 프로젝트를 해보며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한국인과는 다른 가치관을 알 수 있었습니다.

#### 7. 교환학생 느낀점

2019년 9/2부터 익년 2/14까지의 한 학기를 교환학생을 보낸 것은 제 인생에 정말 큰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교환을 와 많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와서 직접 부딪히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낯섭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며 성장한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며 정말 소중한 추억들을 쌓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활 중 교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큰 수확이라 느낍니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공과대학 및 동문회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